

# 신안갯벌 '202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총 4개 갯벌에 85% 해당하는 넓은 면적 포함돼

신안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이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의 세계자연유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 해로 13회째를 맞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호감도,

만족도 등 7개 항목의 소비자 직접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세계자연유산 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된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한국의 갯벌'이란 이름으로 총 4개의 갯벌에 8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 포함돼 있다.  
신안군은 신안갯벌의 세계화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위해 2003년부터 등재

가 된 시점까지 18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신안갯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고된 '모래-자갈 선형체', 세계에서 가장 깊은 40m 깊이의 필퇴적층, 복잡하고 다양한 진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갯벌이라는 강점과 이러한 서식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철새들의 쉼터이자 보금자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최고의 자연환경으로 인정받은 신안갯벌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

영암군, 세계금연의날 맞아 캠페인

영암군이 '제36회 세계금연의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를 금연 주간으로 정하고 흡연 예방 문화조성과 금연 인식 향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금연의날은 매년 5월 31일로, 세계보건기구가 창립 40주년을 맞은 1987년에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Grow Food Not Tobacco)'로 담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흡연은 인간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담배 재배는 식량 위기, 토양오염, 생태계 악영향 등 지구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다.  
영암군의 올해 캠페인은 담배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주민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홍보하는 장.  
영암군은 영암교육지원청의 세계금연의날 행사에서 금연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강의날과 연결해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세계금연의날 캠페인으로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암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청 공직자,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팔 걷어'

실과별로 고령농, 영세농 등 지역 농가 연계해 지원

함평군청 공직자들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손돕기 지원 대상은 고령농, 영세농, 장애인 농가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마을, 양파 수확이 집중되는 5-6월을 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실과별로 지역 농가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또, 농

촌일손돕기 알선장구를 운영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군부대, 농협 등 유관기관을 연결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무안군 환경클린센터 준공식 개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환경교실·청소차 차고지 등 갖추어

무안군은 생활폐기물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남부권 환경클린센터를 신축해 지난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문제에 민관협력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주민들에게 환경 관련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업무 종사자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39억 원(특별교부세 7억, 군비 32억)을 투입해 삼향읍 남악리 2605번지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대지 1만 317.9㎡, 건축물 총면적 1,567㎡)로 조성됐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광군,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 순조로운 출발...편입토지 소유자와 업무협약

영광군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인 강영원, 강창원씨가 참석하여 영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편입 토지 매각·매입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영광군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영광군은 금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

무리하여 2025년에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에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 굴비산업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토지 소유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